

『창세기 25회: 창세기 23:1-20』

1. 헤브론에서 사라가 죽음(23:1-2)

사라는 127년을 살고 죽습니다. 사라는 죽은 나이가 기록된 유일한 족장의 아내입니다. 미드라쉬는 사라의 나이에 상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드라쉬에 따르면, 100은 아주 많은 나이, 20은 아름답, 7은 흠 없음을 상징합니다. 사라는 아주 오랫동안 아름답고 흠 없이 살다가 죽은 여인입니다.1)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 가나안에 들어간 지는 62년이 흘렀습니다. 사라가 죽은 곳은 기랏 아르바,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통곡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 위해 투쟁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2) 사라의 생애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90세까지 아이가 없는 수치를 겪어야 했고, 두 번 남편을 위협에서 구하기 위해 외국 왕에게 잡혀가야 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특별한 관심이 없었던 것인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관심이 있었으나, 사라를 걱정하고 보호하는 데에는 관심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전통적 방식으로 아내를 애도했지만, 애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묻기 위해 크고 값비싼 땅을 구매합니다. 민족의 어머니에 어울리게 그녀의 무덤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위대한 여성을 기리는 훌륭한 기념물이었습니다.

2. 매장지의 거래(23:3-20)

3-4절, 애도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매장지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협상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거류민(게르 베토샤브)으로 소개합니다. 게르는 단순히 이민자 신분을 의미하지만, 토샤브는 사회경제적으로 주변 사람에게 의존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헷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자신이 의존하고 있고, 단지 임시적으로 거류하는 존재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소개합니다.3) 이어서 아브라함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소유”

1) Gordon J. Wenham, *Genesis 16-50*, Word Biblical Commentary Volume 1(Texas: Word Books, 1987), 윤상문, 황수철 역, 『창세기 16-50』(서울: 솔로몬, 2006), 259.

2) 김미화, 박형대, 『하갈과 사라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대한 소고』, 27

3)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8-50*(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5), 임요한 역, 『NICOT 창세기II』(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168.

라는 단어를 고려할 때, 아브라함은 매장지로 영구히 사용하기 위한 땅 일부를 소유할 권리를 요구하는 듯합니다.⁴⁾

5-6절, 아브라함은 자신을 겸손하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헷 족속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였습니다. 헤브론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기꺼이 사라를 장례할 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⁵⁾ 헤브론 사람들의 따뜻하고 관대한 대답하면서도 아브라함에게 소유권을 양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무덤 중 하나를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매장지를 요구했지, 그들의 무덤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⁶⁾

7-9절,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한 장지를 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사람들에게 에브론이 막벨라 굴을 자신에게 팔도록 설득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막벨라 굴이 에브론의 사유지 끝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충분한 대가”(완전한 대금)를 지불하겠다고 말하는데, 이 표현은 후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살 때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미래 소유권에 어떤 모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거래를 공정하게 체결하려 시도합니다.⁷⁾

헤브론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아브라함은 증여 받거나, 불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사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덤의 값을 지불하여 소유를 획득하려는 이유는 증여나 불완전한 대가는 쉽게 철회할 수 있는 반면, 대금을 완전히 지불하여 얻은 소유는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⁸⁾

10-16절, 성문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에브론과 아브라함의 협상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참석합니다. 에브론은 정중하게 굴과 밭을 증여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거절하고 밭을 사겠다고 대답합니다.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은 사백 세겔에 매장지를 팔겠다고 말합니다. 이 가격이 매장지의 크기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좋은 가격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⁹⁾ 분명한 사실은 은 사백 세겔이라는 액수 자체는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땅을 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수한 증인이 보는 가운데 거래 가격

4) Gordon J. Wenham, 『창세기 16-50』, 261.

5)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168.

6) Gordon J. Wenham, 『창세기 16-50』, 262.

7) Kenneth Mathew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Genesis 11:27-50:26*(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2005), 권대영 역, 『창세기 2』(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406.

8) Westbrook, "Purchase of the Cave", 312-333.

9) Kenneth Mathews, 『창세기 2』, 406.

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유와 소유권에 관해 생각해봅시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소유할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의 모든 재산에 관한 권리를 갖지만, 나중에 들어서야 그 재산들을 소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획득한 모든 유익들에 대해 우리 역시 소유권을 갖지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유익들을 소유합니다.¹⁰⁾ 즉, 우리는 엄청난 유익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그 유익들을 실제로 소유해가는 과정에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도 합니다.

17-20절, 에브론이 매도한 구역에는 막벨라 밭, 굴, 나무가 포함됩니다. 헷 족속은 이 계약의 증인입니다. 사라는 이곳에 묻혔고, 아브라함은 매장지를 자신의 소유로 확정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정확한 협상을 통해 죽은 자를 장사지내기 위한 땅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장사지낼 땅을 샀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사는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의 고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하란으로 자손들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고 있고, 헤브론을 자신의 고향으로 만드는 중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사면서 밧단아람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헤브론에서 묻힐 것입니다.¹¹⁾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자신의 고향이라 선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그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은 살아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삭만을 얻었을 뿐, 땅은 얻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도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는 행동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모든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고, 죽고 부활하여 주님을 만날 때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무수한 약속들 중 일부만을

10) Herman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Kampen: 1895), 박태현 역, 『개혁교의학3』(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710.

11) Allen P. Ross, *Creation and Blessing*(Michigan: Baker Book House, 1988), 김창동 역, 『창조와 축복』(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5), 609.

우리 삶에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 대대로 성취해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더 나은 부활을 위해 살아갑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영원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하신 하나님 언젠가 이루실 약속을 신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히브리서 11장 39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 부르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수백년 후를 바라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로 앞에 닥치는 일들에 급급해서 영원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급합니다. 깊이가 적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수백 년 후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귀합니다.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극히 소수라서 더 귀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차고 넘칩니다. 돌은 너무 많아서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청년은 한 번뿐인 인생을 세상 정욕에 휩쓸리고, 자신의 헛된 꿈을 이루기 위해 낭비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합니다.

우리도 영원 안에서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나의 모든 에너지를 내어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기 위해 400세겔을 지불했듯이, 영원한 세계를 위해 나의 귀한 것들을 내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해야 영원한 세계를 위해 투자하는 것일까요? 평소에 하는 일과 영원을 연결하며 살아야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회에 시간과 정성, 재정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교회가 막벨라 굴입니다. 아브라함이 은 사백 세겔이라는 비싼 값을 치르고 막벨라 굴을 산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막벨라 굴은 이방인의 땅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막벨라 굴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교회로 돌아와 안식을 누립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막벨라 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자신들에게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백 년 후에 가나안 땅을 잊지 않고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고작 은 사백 세겔을 주고 산 땅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주고 사신 교회를 어떻게 잊으시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를 기억

하면서, 하나님께서 최후에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땅의 막벨라 굴인 교회에 우리는 인생을 투자해야 합니다.¹²⁾

※ 23장 정리

아브라함이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한 땅은 사라의 가장 좋은 기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1년 안에 아들을 낳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곳이 마므레였습니다. 실제로 13:14-18:15에 따르면, 땅과 후손과 관련한 모든 위대한 약속들이 마므레에서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의 땅을 구입한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전체 가나안 땅을 획득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23장은 헤브론이 가나안에 있다는 사실을 2번이나 반복하고(2, 19절), 그 땅을 위한 협상과 지불이 도시의 장로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졌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주장합니다(10, 13, 16, 18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공식적으로 소유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극히 작은 부분만을 획득하지만, 그것을 통해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이삭, 야곱, 레아 역시 이곳에 묻히는데, 이것은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를 믿는 믿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태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를 고대하는 모든 신앙인들의 표본입니다.

히브리서 11:13-16은 다음처럼 선포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¹³⁾■

12) 정우준, 『창세기 I』(서울: 부크크, 2019), 278-279.

13) Gordon J. Wenham, 『창세기 16-50』, 264-266.